

## o1.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도시화된 환경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먹이와 물을 구하지 못하는 길고양이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뜯어 거리를 더럽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공급할 경우 길고양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 쓰레기봉투를 더 이상 뜯지 않게 됩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급식을 하는 것은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길고양이 배설물 처리, 급식소 주변 청소,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료급식과 함께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o2. “중성화수술”은 개체수 조절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유기동물이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더라도 포획을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로 한 지역의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없앨 경우, 영역을 구축하려는 다른 길고양이들이 주변 지역으로부터 다시 유입되므로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제자리에 놓아주는 방식(TNR)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사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성화수술은 개체수의 증가를 막음과 동시에, 발정 울음소리와 영역싸움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o3.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또한 이 법으로 보호됩니다. 길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약물을 살포해 죽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o4. 길고양이를 도시 생태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세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마냥 방치하자니 쓰레기와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주민과 함께 사료를 주며 개체 수를 줄이는 TNR 사업을 병행하면서 민원도 줄이고 개체수도 줄이는 1석 2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배척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 삭막한 도시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